

보성군 “K-티 산업 이끌 최고 차 음료 가린다”

5월3일 제4회 티 마스터컵 결선

공정성 강화 ‘지정차’ 제도 도입

프랜차이즈 협업 등 산업 성과도

보성군이 지역 특산물인 보성차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잠재된 차 문화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차 음료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국 차 전문가와 바리스타 등이 총출동해 차 음료의 최신 트렌드를 제

시하는 ‘제4회 보성 티 마스터컵’ 결선 무대가 오는 5월3일 제4회 보성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대회 참가 접수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며, 예선전은 오는 4월17-18일 서울에서, 19일에는 부산에서 각각 치러진다.

이후 5월2일 보성 본고장에서 열리는 준결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참가자 간 형평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지정차’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참가자들은 보성 지역 다원에서 직접 생산된

차를 필수적으로 활용돼 대중적인 카페용 차 음료를 개발해야 한다.

지정차로는 예성오가닉의 녹차, 원당제다원의 말차, 백연팔발효차의 홍차, 선다원과 청우다원의 호지차, 영천다원의 황차 등 총 6개 다원에서 생산된 7개 제품이 엄선됐으며, 참가자는 이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베이스로 사용해야 한다.

대회 최종 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일회성 경연을 넘어 실제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 성과를 창출한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전 대회에서 입상한 출품작들이 대형 음료 프랜차이즈와의 협업을 통해 보성 대표 시그니처 음료로 정식 출시되는 등 시장성을 입증한 바 있어, 올해 역시 차 음료 시장에서 보성차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뽐내는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말차 등 차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K-티 산업의 세계 시장 확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말차 등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보성차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음료 개발을 통해 한국 차와 K-Tea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성대하게 열리는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는 보성군민의 날,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일일산 철쭉 문화행사,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등 다채로운 대규모 융복합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동시발적으로 개최돼 전국 상춘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지난 2024년 열린 ‘제18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시민들 모습.

<장흥군 제공>

장흥군, 정남진 전국 마라톤대회 ‘안전 최우선’

29일 개최...전국 3천여명 참가

전 구간 차량 통제·우회로 확보

구급차 배치 등 유관기관 협력

장흥군이 전국 3천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제20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9일 오전 9시20분 개최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막을 올린다.

오전 10시 하프코스를 선두로 단축코스과 건강코스 참가자들이 순차적으로 탐진강변을 출발해 장흥의 아름다운 봄 정취를 만끽한다.

군과 연맹은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흥고 로터리에서 부산면행정복지센터를 거쳐 강진군 오추삼거리에 이르는 전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간별로 촘촘하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우회로 안내를 철저히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현장

에 구급차량과 전문 의료진을 전진 배치하고, 코스 내 시설물과 환경 정비도 일찌감치 마쳤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과 장흥병원, 장흥우리병원, 원광대학교 통합한방병원 등 지역 주요 기관들도 의료 및 운영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행사의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국의 마라톤러들이 장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안전하게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교통 통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고흥군, FTA 과수 시설현대화 14곳 지원

고품질 생산·재해 설비 구축

고흥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사업에 나선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엄격한 서류 평가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9일 총 14개소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종

완료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생산·유통 통합 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와 기후 변화 대응 재해 예방 설비 구축 등으로 지역 과수 생산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참다래와 유

자 등 지역 특화 과수는 오는 25일 전격 개장하는 ‘고흥 로컬푸드 직매장’에 곧바로 출하될 예정이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 구조 구축에 공을 들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빈틈없이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화순군, 바이오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내달 30일까지 최대 5천만원 지원

화순군이 지역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30일 오후 6시까지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본사나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 의약·의료기기·천연물 등 바이오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창출, 국내외 마케팅 등 총 12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복수로 지원된다.

특히 첨단 제조 기반 생산성 향상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이 포함돼 관내 기업들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31일 화순 어울림센터에서 별도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바이오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시장 진출을 동시에 돕는 든든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전국 최장 ‘300리 벚꽃축제’ 개막

28일부터 사흘간 서시천공원 등서

인문학 강의·공연 등 프로그램 풍성

구례군이 전국 최장 길이의 아름다운 벚꽃길을 무대로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봄꽃 축제를 개최한다.

23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서시천체육공원과 문척면 행복센터 일원에서 ‘2026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연다.

지역 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129km에 달하는 벚꽃길을 따라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를 대폭 늘려 관람객을 맞이한다.

서시천체육공원에서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스탬프 투어 등 가족 단위 체험 행사가 펼쳐지며, 28일 당일에는 황가람, 나비 등 인기 가수 개막 축하 공연이 열린다.

특히 올해는 심용환 박사의 역사인문학 강의와 벚꽃 명패리기, 네컷 사진 부스 등 구례의 역사와 정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콘텐츠로 축제의 폭을 크게 넓혔다.

아울러 문척면 일원에서는 잔수농악과 관광객 참여 레크리에이션, 벚꽃 노래자랑 등이 이어지고 서시천 꽃길 주변으로는 봄 정취를 더할 버스킹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연과 사람,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대한민국 대표 봄 관광 콘텐츠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순천시, 여행객 대상 ‘반값 스테이’ 추진

1박 이상 체류·주요 관광지 방문

최대 10만원 ‘지역 상품권’ 환급

순천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행 경비의 절반을 통 크게 돌려주는 파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선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외지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2026년 순천시 봄날의 싹표, 반값 스테이(STAY)’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숙박비 지원을 넘어 순천만의 고유한 치유 콘텐츠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요건은 관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체류와 주요 관광지 1곳 이상 방문을 모두 충족하고, 관내에서 최소 5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한 여행객에게는 전체 여행 경비의 50%, 최대 10만원을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준다.

참여 희망자는 순천 방문 5일 전까지 지정된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오늘부터 시작되며, 담당자 승인 후 여행을 즐기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비용 부담 없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심신을 치유하길 바란다”며 “깊이 있게 머물며 회복하는 웰니스 치유 도시 순천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전액 상품권 환급

어른 2천원·어린이 1천원

지역 상권 소비 활력 기대

담양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사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전액을 지역 화폐로 환급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입장료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방문객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원의 해당 금액을 즉시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관내 전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쿠폰은 오는 4월30일까지 메타랜드와 담양읍 중앙로 일대 상가에서 사용 가능하며, 쿠폰 받은 상가는 6월30일까지 군 관광과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 지급된 임시 환급 쿠폰은 정식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앞서 군은 지난달 1일부터 약 두달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기간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했다.

김은영 관광과장은 “방문객들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체류형 관광이 굳건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관광 산업과 소상공인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